

제5차 농정개혁 추진회의

The 5th Agricultural Policy Reform Meeting

박 병 태*
Park, Bong-tae

1. 서 론

정부는 '97. 6. 11 김영삼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5차 농정개혁추진 회의를 개최하여, 그동안의 농정개혁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주요 농정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날 회의는 고건 국무총리, 강경식 경제부총리, 정시채 농림부장관을 비롯, 관계부처 장관과 김종위 신한국당 정책위 의장, 김태식 국회농림해양수산 위원장 등 국회의원, 농협 등 생산자 단체장과 농업인 대표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건 총리가 농정개혁 추진경과를, 정시채 농림부장관이 농정개혁 성과 및 추진방향을, 신상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개혁 성과 및 추진방향을, 강운태 내무부 장관이 농어촌생활여건개선 방안을, 안병영 교육부장관이 농어촌교육여건개선 방안을, 손학규 보건복지부장관이 농어촌 복지향상 방안을 각각 보고하였다.

이어 쌀전업농(박종환), 양돈전업농(안장현)의 성공사례발표도 함께 있었다.

현 농정개혁추진 회의는 '94년 수립된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추진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완과제를 발굴해 나가기 위해 개최하는 것으로서 현재까지 4회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금번 제5차 회의는 문민정부의 농정개혁

을 마무리하고, 앞으로의 농업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2. 농림부 보고내용

가. 실 적

- 1) 농어촌 투융자를 획기적으로 확대
 - 42조의 투자계획을 3년 앞당겨 '98년까지 마무리
 - 농어촌 특별세를 신설하여, 10년간(1995~2004) 15조원을 집중 투자
- 2) 농지·유통 등 핵심제도를 개방·경쟁대응체제로 개혁
 - 농지소유 및 이용·보전제도를 정립하고, 구조개선을 촉진
 - 농산물 유통시설의 확충과 거래제도의 투명성을 제고
 - 협동조합 운영의 민주화와 경제사업을 활성화
 - 쌀산업발전 종합대책을 추진(약정수매제, 직접지불제 도입)
 - 농정추진체계를 상향식 자율방식으로 전환 (※ 농지법 제정 등 39개 법령 정비)

* 농림부 농업공무원 교육원

3) 녹화위주의 산림제도를 경영·이용 중심으로 개편

- 산림의 기능과 용도에 따라 산지보전·이용체계를 확립
- 『임업진흥촉진법』을 제정하여 사유림 경영 활성화

4) 농어촌 활력증진을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

- '97. 7. 1부터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을 전면 적용
- 영농기계화 실현을 위한 농기계를 반값으로 공급 지원
- 농어촌 학생 대학특례 입학제 도입 및 농어민 연금제를 실시

나. 성 과

1) 농업성장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

- 농업성장율이 0.4%('87~'91) → 2.2%('92~'96)
- 농가소득이 90년과 비교하여 2배 이상 증가(23백만원)

2) 쌀, 축산, 시설원예 등 기계화, 규모화, 자동화 시설로 진전

- 쌀은 이앙·수확 등 주요 농작업 97%가 기계화-경지정리율 79%, 쌀 3ha이상 농가 34,200호
- 축산, 시설, 원예 등의 전업농가가 크게 증가
- 다양한 농업경영체를 체계적으로 육성

3) 농업인 후계자(97,000명), 전업농(36,000호) 육성

- 농업회사, 영농조합법인 등 4,900개소 설립

4) 농촌 생활여건 및 복지수준 향상

- 도로·상수도 등 생활기반 확충
- 대학특례입학 이후 농촌고교생 증가 37만명('94) → 39만명('96)

5) '96~'97년 사이에 6,195가구가 귀농, 정착

- 최근 급격히 증가추세 : 299('91) → 922('95) → 2,060('96) 가구
- 40세 미만의 젊은 세대가 46%
- 농촌진흥청에 전담훈련과정 및 귀농상담실 운영

다. 향후 추진계획

1) 주곡인 쌀의 자급기반 확보

- 쌀전업농 6만호 등 전문경영체를 주축으로 쌀산업 현대화 추진
- 주곡자급에 필요한 논면적 110만ha 확보와 산지활용 추진

2) 2001년 개방에 대비한 한우산업 경쟁력 제고

- 송아지 생산안정제를 '98년부터 도입(4,400억원) 한우연구소 설립
- 세계시장에 적극 진출하는 수출농업시대를 개척
- 대단위 수출농단 확대, 수출 거점화 - 2004년 50억불 수출을 위한 전진기지로 육성발전
- 자금, 정보 등 수출 애로요인 해소
- 첨단기술 농업경영체제의 구축
- 민·관 합동의 선진농업 기술개발 보급 추진
- 농업경영혁신을 위한 「벤처마킹」 도입
- 농산물 산지유통 및 물류체계 혁신
- 농협 등 생산자 단체를 유통의 핵심체로 육성
- 유통단계 축소, 물류비 40% 추진
- 환경친화적 농업·임업의 육성
- 환경농업법 제정과 산지의 자원화
- 「농업·농촌기본법」 제정과 '99년 이후 발전계획 추진
- 식량주권 확보, 통일농정을 위한 농업·농촌기본법 제정
- 생산기반정비 등 1단계 투자에 이어 기술수출 정보화 등 2단계 대책 수립, 추진

3. 농업정책 보고내용

가. 귀농인력의 영농 정착지원

지난 '90년이후 도시에서 농촌으로 돌아오는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 '97. 4월 현재 6,195농가가 돌아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96년이후 2,910호가 귀농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고, 40세 미만의 청장년층이 2,830호로 45. 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젊은 층일수록 학력이 높고, 농업이 희망적이기 때문에 귀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서는 귀농인력을 대상으로 이들이 농촌에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경영·기술상담 및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정책자금 지원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금년 6월부터 농촌진흥청·지도소등에 『귀농인 영농상담실』을 설치하여, 귀농인력의 수준과 능력을 고려하여 단계별 상담을 실시하고, 특성화 대학(16개교) 등을 통해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귀농인력이 농업인 후계자로 선정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기로 했다.

나. 주곡인 쌀 지급기반 확립

농림부는 점차 불안해지는 국제 식량수급 여건과 통일시대에 대비한 주곡의 안정공급기반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쌀 지급기반 확충을 농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하기로 하고 쌀 전업농 육성과 생산기반확보, 경쟁력 향상, 민간시장기능 활성화 등을 앞으로의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쌀전업농 등 전문경영체를 중심으로 생산체계를 개편해 나가면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고품질 쌀유통 및 민간시장기능 활성화를 위해 미국종합처리장을 중심으로 생산·가공·판매를 계열화하여 논면적 110만ha를 확보하기 위해 진흥지역 등 우량농지를 보전하고 산지의 다목적인 활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다. 2001년 개방에 대비한 한우산업 경쟁력 제고

2001년 수입개방을 앞두고 있는 한우에 대해서는 한우를 수입 쇠고기와는 구별되는 고급육 산업으로 집중·육성하여 개방후에도 30%의 자급율을 유지한다는 목표아래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우의 안정적 번식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번식농가에 송아지 시세차익을 보전해주는 송아지 생산안정제를 내년 7월부터 도입하고, 한우 전업농 육성 대상자 1만호를 금년 하반기중에 선정하여 정책자금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규모화를 촉진하며,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국내 조사료 기반의 확충과 아울러 축산농가의 자가배합 사료 공급체계를 확립해 나가기 위해 자금지원 확대와 제도개선을 추진기로 했다.

또한, 『한우연구소』를 설립하여 품질고급화 연구를 가속화 하고, 한우 품질인증제를 활용한 얼굴있는 고급육 생산을 늘려나가며, 축산물 종합처리장을 중심으로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한우 전문판매점의 설치확대, 한우고기 우수성 소비 홍보 등 한우의 생산, 유통, 소비전반에 걸쳐 정부는 수입개방에 대응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라. 50억불 수출달성의 전진기지, 대규모 『수출농단』 조성

정부는 WTO출범과 더불어 해외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수출농업을 개척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시설원예농업은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으며 농산물의 최대 수입국인 일본이 인접하여 수출확대의 조건은 좋으나, 국내가격이 높아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품질수준은 아직 낮으며, 지속적인 수출물량 확보가 어려운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첨단시설원예 대규모 『수출농단』을 조성하여 수출애로요인을 해소하고 국내 농산물

의 수출전진기지로 구축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2개소, 내년도에 2개소, 총 4개소 조성에 1천 3백 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금년도 대규모 『수출농단』 사업 지역은 경기도 안성군과 전라남도 해남군으로 결정하여 부지조성 사업에 착수키로 하였다.

『수출농단』은 총 30ha의 부지에 16ha의 첨단 유리온실, 2ha규모의 육묘 시설, 유통 및 수출 시설 등을 갖추게 되며, 또한 장기적으로 품목별 전문연구소를 설치하여 종묘공급·재배기술·수집·검역 및 공항, 항만 수송 등의 일관 수출처리체계(One-stop service)를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이러한 대규모 『수출농단』 조성으로 물류비용등 생산비를 절감하고, 재배기술을 향상시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함은 물론, 주위의 기존생산단지(190개)와 연계하여 수출전진기지의 역할을 담당토록 하고, 2004년까지 시설원예농업에 1조원을 투자함으로써 획기적인 수출증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같은 대규모 『수출농단』 조성과 더불어 주요 수출시장을 중심으로 해외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자금, 해외시장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수출애로 요인의 해소 등에도 적극 노력키로 하였다.

마. 농업인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의 기술개발 전략 추진

농림부는 21세기형 첨단기술 농업경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선진 농업기술개발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기술개발과정에 민간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여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용기술을 개발하고 기술개발성과를 효율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정보망 구축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농업에도 「벤처마케팅제」를 도입, 이를 보완·발전시키기 위하여 경영모델과 진단표를 개발하여 농업인이 발전수준을 스스로 판단하여,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컨실

팅」등을 통하여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바. 농업·농촌기본법 제정, 21세기 농정의 기본틀 마련

이번 보고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21세기 농정의 기본틀이 될 「농업·농촌기본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농림부는 이제 막 뿌리를 내리고 있는 농업·농촌의 발전을 뒷받침하고, 앞으로 예견되는 대내외 농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기본법」제정을 추진키로 하였다.

이번에 제정될 기본법에는 21세기에 대응한 우리농업의 새로운 비전과 역할을 정립하여 선진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방향과 전략을 마련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였다.

주요방향으로는 기술·수출·정보 등 무한경쟁시대 대응방향 식량주권 확립 및 복지·환경 등 농업·농촌 선진화 방안 통일대비 농정방안 등에 중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농업정책심의회 등의 운영을 통해 관계부처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입법추진단」을 설치하여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를 도출하고, 기존의 농업기본법·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등은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사. '99년 이후 투융자는 수출·기술·정보화에 역점

농림부는 42조 구조개선 계획이 끝나는 '99년 이후에도 농업부분에 대한 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99년 이후의 투융자 계획을 수립·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농림업의 구조개선에 대한 투자성고가 구미 선진국의 경우 길게는 수세기, 짧게는 20~30년간의 제도 개혁과 투융자 확대를 통하여 그 효과가 나타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투자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2단계 투자가 요구되는 상황에 근거한 것이다.

농림부에 따르면 '99년 이후 투융자 방향은

대체로 1단계 투자가 생산기반정비 등에 중점을 둔것에 비해 2단계 투자는 기술, 정보, 수출 등 농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전문경영체에 대한 육성에 중점을 두되, 중·소농가에게는 중소농 소득지원사업, 교육, 의료 등 생활여건 및 복지개선 시책으로 보완해나가는 것으로 큰 줄기를 잡고 있다. 또한, 투융자 지원방식도 개선하여 개별경영체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지원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융자로 전환해 나가는 동시에, 유사사업을 통합하여 전문경영체를 중심으로 종합지원하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을 활성화하여 가공·유통 등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아. 농어촌 생활·교육·복지개선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

본 회의에서는 해양수산부·내무부·교육부·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도 앞으로 농어촌지역의 발전을 위한 시책들을 보고하였다.

해양수산부는 환경친화적 양식어업을 육성하기 위해 해양목장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동시에,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감천항을 동북아 수산물 유통의 중심기지로 개발하고, 2000년까지 어촌관광개발을 수립하여 어촌과 도시를 관광·휴양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내무부는 금년부터 2004년까지 총 13조 405

억원을 투자하여 농어촌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단위 집중투자방식, 「인센티브」제 도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99년까지 기존의 공립고교 5개를 전문대학으로 개편하여 농어촌지역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농어촌지역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 농어촌지역 거점 우수고교를 육성하고, 농어촌지역 소규모 초등학교 31개교를 9개교로 통폐합하는 한편 통폐합된 학교에 총 297억원을 투자하여 시설·설비를 현대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99년까지 모든 농어촌지역 보건소(136개소)에 한방진료실을 설치하는 등 보건의료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농어촌의료보험의 재정안정을 위해 조합간 재정조정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약 력

박 병 태



- 1982. 서울대학교 농공학과 졸업
- 1992. 서울대학교 농공학과 농학석사
- 1996. 농림부 토목사무관
- 현재. 농림부 농업공무원 교육원 교관
- KCID 편집·학술분과위원